

#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마'

농관원, 내달 12일까지 가공·판매업체 등 대상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유통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1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 원산지 표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국 50개 사이버전달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행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사업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 공유 8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한국농수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한국중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 농민이길 양육회 심일대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16개 주요 농업인 단체장을 초청해 농촌진흥사업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하반기 금융환경 변화 선제대응

농협은행 전북본부, 올 하반기 사업추진 전략회의 건전여신 추진·수익성 개선 질적 성장 역량 집중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지난 8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2년 하반기 사업추진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장경민 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34개 영업점 사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과 함께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8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2년 하반기 사업추진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 방향 및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북본부는 하반기 물가상승과 환율 변동, 기준금리 상승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여신 추진과 수익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RRM활동을 강화해 농식품·우량기업여신 집중 추진,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기반으로 수익증권, 방카, 외환 등의 사업 부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 본부장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각 영업점에서 대고객 쌀 소비촉진 사은행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장경민 본부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물가 상승 등 앞으로의 금융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전북도민의 곁을 지키는 지역대표은행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건설현장 불합리 관행 해소

건협 전북도회 회장단 전북도 감사관실과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단은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일 전북도청 감사관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단(회장 윤방섭)은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일 전북도청 감사관실(감사관 김진철)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기술감사팀의 주요 감사추진 분야와 부실공사 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협회는 각종 불법·부조리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건설자재 급등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 불안에 따른 어려움,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주계 약자형 공동도급 발주 자제를 일선 지자체에 계도하여 줄 것 등의 지역건설업계 당면문제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윤방섭 회장은 "공공시설물은 예산의 절감 못지않게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를 적극 감안해 적정공사비 산출과 공시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과 공기산정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진철 감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을 표시하며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상호금융 쌀 소비촉진 앞장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 지방청장실에서 소속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갑질 사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농협 상호금융(본부장 정재호)은 재고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를 돕기 위해 올 하반기 예정된 모든 상호금융 홍보 및 고객 사은행사 시 쌀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상호금융 상품추진 프로모션, 우수농협 시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감사고객 사은행사 등 사은품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전북 쌀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는 쌀 생산 증가 및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전북 농협 쌀 소비촉진 운동'에 상호금융도 적극 동참하여 농업인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 앞장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 지방청장실에서 소속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갑질 사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청렴교육은 청장 인사발령, 직장 내 갑질예방 사례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서 작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직사회

서한문 발송,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등을 통해 직장 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황성태 청장은 "기관장과 부서장이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생활을 통해 소속직원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며,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와 청렴한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투우소·한우 등 책 한권에

'세계의 소 품종 해설집' 발간... 국내 5품종 소개



커다란 뿔로 열을 분산시켜 대위를 이기는 미국의 가축 유전자원인 재래 소 5품종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는 한반도에서 2,000년 이상 독자적으로 키워졌으며 외국 품종과는 차별화된 유전적 구조로 진화해 왔다.

전체 탈색이 흰색인 '한우(황우)', 황갈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이루는 '흰소', 몸 전체가 검은색인 '제주흑우', 몸 전체가 흰색인 '내륙흑우', 몸 전체가 흰색인 '백우'까지 5품종이 보존되고 있다.

세계의 소 품종해설'은 문화재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보급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ard.go.kr)에서도 파일(H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최창용 센터장은 "전 세계에는 약 10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며 "이번 소 품종해설집 발간이 세계 소 품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가축 유전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 방재숲 조성 지역주민 의견 청취

부안 계획면서 주민설명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라북도 부안군 계획면사무소에서 지난 8일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은 비산모래에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계획된 일원 5km 구간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명회에 참석한 계획면 주민 30여 명과 함께 사업 추진 내용과 향후 일정·계획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주민들은 방재숲의 기능적인 효과와 더불어 경관적인 가치도 지닐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방재숲 조성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 사업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